

발행호: 39호

발행일: 2018.01

발행인: 임상래

발행위원: 이태혁, 임두빈

발행기관: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 NUESTRA AMERIC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 1. Focus

[004] 2018년 라틴아메리카 정치 경제 전망

김원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 2. Issues

[016] 2.1. 2018년 멕시코 대선 전망

최명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034] 2.2. 2018년 브라질 대선은 좌파와 우파의 이념대결이 아니라 부패 대결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3. People

[040] 호세 무히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송병선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 4. Country Report

[050] 암초에 부딪힌 마크리 정부의 개혁정책과 과제

손혜현 (국립외교원)

NUESTRA  
AMERICA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5. Diary

[062] 칠레 대선 전후

김순배 (칠레센트럴대학교 한국학 프로그램)

## 6. Interview

[076] 중남미연구의 발자취

백종국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7. Travel

[100] 세계 무역과 금융의 허브 파나마

임수진 (대구카톨릭대학교 중남미학부)

## 8. Academy

[108] 라틴아메리카 학계에서는

## 9. ILLAS

[116] 간추린소식







## 2018년 라틴아메리카 정치 경제 전망

김원호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라틴아메리카의 2018년은 주요국들의 대통령 선거가 몰려있는 보기 드문 해이다. 이번 정치 주기는 사실 2017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즉, 2017년 11월(1차 투표)과 12월(결선)의 칠레 대통령 선거, 11월의 온두라스 대통령 선거에 이어 2018년에는 2월 코스타리카 대선과 쿠바의 정권 이양이 예정되어 있고, 4월에는 파라과이, 5월 콜롬비아, 7월 멕시코, 10월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미정이긴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도 연말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총선 등 크고 작은 선거까지 합하면 2018년은 정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2019년에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파나마, 과테말라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2018년 중 이들 국가에서는 대선 정국이 시작된다.

라틴아메리카 인구의 거의 80%가량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2018년은 아래 분석하는 바와 같이 역내 정치판도의 새 흐름을 결정짓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새 기류는 좌성향이든 우성향이든 새로운 “포퓰리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 (Muggah & Winter 2017)도 있어 각국의 안보, 경제, 통상 및 대미관계 등 대외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경제 기상도에는 언제나 큰 흐름이란 것이 있었다. 근래를 예로 들면, 1999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집권 이래 이른바 ‘핑크 타이드’라고 불리워진 좌파의 득세가 대표적이다. 핑크 타이드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을 휩쓸었다. 그러나 2015년 마우리시오 마크리의 아르헨티나 대선 승리를 신호탄으로 우파들의 귀환이 시작되었다.



2016년에는 페루 대선에서 금융인 출신인 페드로 쿠친스키가 당선되었고,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노동자당 13년 통치가 좌초되었다. 2017년에는 칠레 우파를 대변하는 세바스티안 피네라 전 대통령이 재집권 도전에 성공했다. 마크리, 쿠친스키, 피네라 모두 재계 인사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한 2018년 3월로 미셸 바셀레 칠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라틴아메리카는 여성 지도자 없는 지역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국내 일부 언론 (동아일보 2017.12.19. 등)이 보도하듯이 라틴아메리카의 최근 정치기류를 우파의 복귀로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다. 좌파와 우파의 이분법을 가능케하는 변수는 원자재 가격의 등락이었다. 21세기에 들어 중국의 원자재 수요 급증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기반인 광물, 에너지, 식량자원의 국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를 배경으로 빈민구제 및 사회복지를 내세운 좌파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2011년 이래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재정 확대에 의존

하던 좌파 민중선동가들이 설 땅을 잃고 우파, 즉 실용주의자 또는 온건파에게 정권을 내주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정치판도에 새 바람을 몰고 온 변수는 원자재 가격의 변화 만이 아니다.

2018년 지역 정치변동을 결정짓는 키워드는 전통적인 이슈인 ‘사회안정’ vs. ‘경제안정성장’, 또는 ‘재정확대’ vs. ‘긴축재정’이 아니라 부패, 기존정치 불신, 미국의 신 국수주의 영향 등이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부패다. 오얀타 우말라 전 페루 대통령 부부가 유례없이 구속된 것은 물론, 호세피 탄핵에 일임을 담당했던 미셸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과, 혁신과 개혁을 내세웠던 멕시코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사회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칠레의 바셀레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지지율이 곤두박칠친 것도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부패 혐의 때문이다.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이 최근 탄핵위기에 몰렸던 것이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의 2018년

재집권 도전에 유일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역시 부패혐의다. 이른바 Lava Jato (세차) 수사를 시작으로 건설회사 오데브레시 뇌물공여사건 수사로 이어진 부패스캔들은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지역 각국 정치에 좌.우파 구별없는 충격을 주었다.

경기하강과 함께 불거진 부패스캔들은 불에 기름부는 격으로 라틴아메리카 정국을 강타했다. 지역경제는 2011년 이래 6년간 줄곧 하강세를 타다가 2017년에서야 회복세로 돌아서는 참이다. 지역경제규모의 약 40% 비중을 차지하는 브라질 경제는 2015년과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2017년 0.6%, 2018년 2.2%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의 주식시장은 2016년초 최저수준으로부터 수직상승하면서 2017년 9월 최고치 기록했다. 멕시코의 폐소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라는 악재속에서도 2017년 한해 가장 선전한 통화중의 하나로 평가되었다. 지역경제는 두해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17년은 1.7%, 2018년 1.9% 성장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예측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건실한 재정정책을 추진한 실용주의 온건파의 성과이지만, 2017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세계 평균 성장률 추정치 3.6%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부진한 경제성적표는 ‘원자재 붐’ 시기의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빈곤감소의 사회적 성과를 갈아먹기에 충분했다. 경제난은 부패스캔들과 어우러져 라틴아메리카 지역 민심을 악화시키고 있다.

둘째 키워드는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다. 부패와 경제난, 각종 범죄 등 심각한 치안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기존 정당과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은 심화되고 있다. 밴더빌트대의 라틴아메리카여론프로젝트팀(LAPOP)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2014년의 66.4%에서 2017년 57.8%로 추락해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38%의 응답자는 범죄와 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면 군부쿠데타도 용인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여파가 좌파나 우파 어느 일방을 향한 것이 아니고, 재선을 노리는 현직 대통령

이나, 집권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정권이나 정치체제의 부패상을 지적하는 새로운 선동가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이같은 새 정치기류의 전형적인 수혜자는 룰라 전 대통령에 맞선 극우성향의 자이르 마시아스 보우소나루 후보로 분석된다. 호세피 탄핵이후 잔여임기를 채우고 있는 테메르 대통령은 공공지출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의 지지율은 3%로 최하수준이다. 브라질의 IDEIA Big Data (2017)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의 91%는 기존 어느 정당도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믿고 있으며 약 60% 가량은 새 대통령이 기존 3대 정당소속이 아니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심이 기존정치에 식상해 극우 또는 극좌성향의 새로운 포퓰리스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육군 대위 출신인 보우소나루 후보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을 미화하며 의회해산을 거침없이 주창하는가 하면 트럼프식의 보호주의 통상정책, 총기규제완화, 강권적인 치안확립을 내세

우고 있다. 그의 지지율은 룰라의 36%에 훨씬 못미치는 15%에 불과하지만, 다수 후보의 난립속에 현재의 2위를 유지할 경우 결선투표에서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52년 내전이 종식된 콜롬비아에서는 2017년 8월 좌익게릴라들이 콜롬비아혁명군의 약자인 FARC를 유지한 채 명칭 만을 코문혁명대안군(Fuerza Alternativa Revolucionaria del Común)으로 바꾼 콜롬비아공산당을 창당해 2018년 3월 총선과 5월 대선에 참여한다. FARC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민은 12%에 불과하고 비호감율도 84%에 이르지만 콜롬비아 국민들은 FARC보다 기존 정당에 더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Gallup Colombia 2017). 즉,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 정부가 게릴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를 취한데 대한 불만은 현재 1위를 달리는 집권당 후보 바르가스 예라스 전 부통령에게 점차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보고타시 시장을 역임한 M-19 게릴라출신의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가 현재의 2위에서 상승가도를 탈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는 20여명의 후보가 나설 전망인데 2014년 대선에서 자신이 내세운 후보의 낙방을 경험한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는 페트로 후보를 결선에서 지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Muggah & Winter 2017) 페트로는 새 기류의 또다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셋째 키워드는 미국의 신 국수주의로부터의 영향이다. 최근 피네라 전 대통령은 유세기간중 트럼프와 유사하게 불법이민자 추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만일 중도좌파가 정권을 연장할 경우 칠레에서도 베네수엘라와 같은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유권자들을 압박해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트럼프 효과의 역설적인 최대 수혜자는 멕시코시 시장을 역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로 점쳐진다. 국가재건운동(MORENA) 창설자이자 당수인 그는 2006년과 2012년에 이어 오는 7월 1일 대선에 세 번째 도전한다. 로페스 후보는 종전에는 급진 좌파로서 기피인물이었으나, 국경

장벽설치 및 NAFTA 폐기를 위협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멕시코사회에 확산되면서 그에 맞서 국가적 자존심을 세울 책임자로서 평가되어 40여명의 후보 가운데 부동의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세가지 키워드로 구성된 새로운 정치 기류가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휩쓸 경우 그 성향은, 특히 양대 국가인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 여파는 첫째, 멕시코를 시발점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대미 관계 소원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2018년 4월 13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제8차 미주정상회의 (매 3년마다 개최)에 미국 대통령의 첫 불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제7차 미주정상회의에 앞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해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단행한 점을 상기한다면 최근 대쿠바 정책 반전을 시도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다만, 쿠바의 변화라는 변수는 남아 있다. 쿠바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는 2018년 2월 국가평의회 의장직에서 퇴진할 것임을 밝혀왔었던 바, 국무회의 의장직 역시 후계자에게 이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예측대로 미겔 디아스 카넬 제1부의장이 승계하더라도 카스트로는 2021년 제8차 당대회까지 공산당 제1서기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쿠바혁명후 세대인 디아스 카넬은 실권없는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018년 2월 새 국회 구성에 앞서 2017년 11월 26일부터 시작된 시의회 선거부터 공산당 소속이 아닌 후보들에 대한 각종 출마규제 및 탄압조치들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쿠바의 정치변화는 그리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2018년 기류를 형성할 경우 두 번째 여파는 멕시코와 브라질 양국을 포함한 역내 12개국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기 위해 구성했던 이른바 리마그룹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어서 2018년말

대선이 치러져야하지만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주요 야당의 정당활동 금지령을 내린 터라 대선 실시 가능성은 낮아졌다. 설사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분열된 야당이 초인플레이(2018년 2,400% 전망)와 기초생필품 부족사태, 치안부재상황을 해결할 대안을 내놓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외적 여건상 베네수엘라 정치상황의 변화 가능성은 낮아진다.

다른 한편 2019년 대선을 앞두고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4선 도전을 위한 법적 정당성을 2018년중 확고히 한다면 이 또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추세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8년 멕시코 대선 전망

최명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2018년은 특히 라틴아메리카에 결정적 한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6개국에 대선이 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대통령중심제이고 지방분권 혹은 연방제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권한은 작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외의 미디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핑크 타이드로 표현되던 라틴아메리카 좌파정권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표현을 달리 하면 아르헨티나, 칠레 등 우파정권의 회복이 얼마나 이뤄질 것인지를 주목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결과론적 분석이나 승패를 가늠하고 예상하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더 중요하면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2018년 대선이 있는 국가들 중 한 정파가

50%를 넘어서는, 다시 말해 민주적 선거제도아래서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지지를 받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약 30% 선에서 서로 견제할 만한 상황이며 21세기 초반 열풍이었고 라틴아메리카의 변수였던 진보 혹은 좌파 정파는 현재 상수(常數)이며 핑크 타이드가 현재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더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를 강화하며 일부 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무력 충돌, 혹은 내전적 상황이 종식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는 정파에 상관없이 공감하고 있다. 적어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선 그런 척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것이 비공식적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아르헨티나의 시위상황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정파 혹은 세력이 행정부 권력을 장악한다고 해서 그 국가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달라질 것이라 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전근대적이다. 대통령제가 아무리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말이다. 이런 면에서 라틴아메리카는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과연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공복

(公 僕)을 뽑을 것인지 누구의 지지자로 숭배하며 자신을 구원해줄 영웅을 기다릴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영웅을 기다리던 열망의 실패가 라틴아메리카의 근현대사의 일면일지도 모를 일이다.

멕시코의 현 상황은 단순해보이면서도 복잡한 면이 있다.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Lopez Obrador는 이미 국가재건당(MORENA)의 대선 후보이며 집권여당인 제도혁명당(PRI)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현 정권의 경제부장관인 호세 안토니오 메아데(José Antonio Meade)를 후보로 공식화했다. 메아데는 교수출신의 관료(재무장관)이며 제도혁명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전무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자체로 제도혁명당 역사에서 파격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대중적인 인지도, 정치적 기반이 전무하다는 것이 약점이면서 동시에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멕시코의 뿌리 깊은 구조적 부패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제도혁명당의 조직과 기타 멕시코의 기득권이 과연 메아데의 선거 캠페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전 정권에서도

주요 보직을 했다는 점,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국가 재정 및 국내외 경제 상황에 책임이 있다는 점은 약점이다. 국가행동당의 대선후보는 전 당대표였던 리카르도 아나야 코르테스(Ricardo Anaya Cortés)이다. 만 38세의 젊은 정치인이며 당대표를 두 번이나 역임하기도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0%이상의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는 전 대통령인 펠리페 칼데론의 부인이기도 한 마르가리타 사발라(Margarita Zavala) 지지층이 겹치는 면이 있으나 사발라가 포기할 경우 리카르도 아나야 또한 강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주요 세 정당인 제도혁명당-국가행동당-민주혁명당<sup>1)</sup>이 연대하고 있고 로페스 오브라도가 속한 국가재건당은 소수이다. 하지만 주요 보수 정당의 후보가 비슷한 지지도를 보이며 보수층이 분열할 경우 국회 소수정당인 국가재건당의 후보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 민주혁명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가행동당과 연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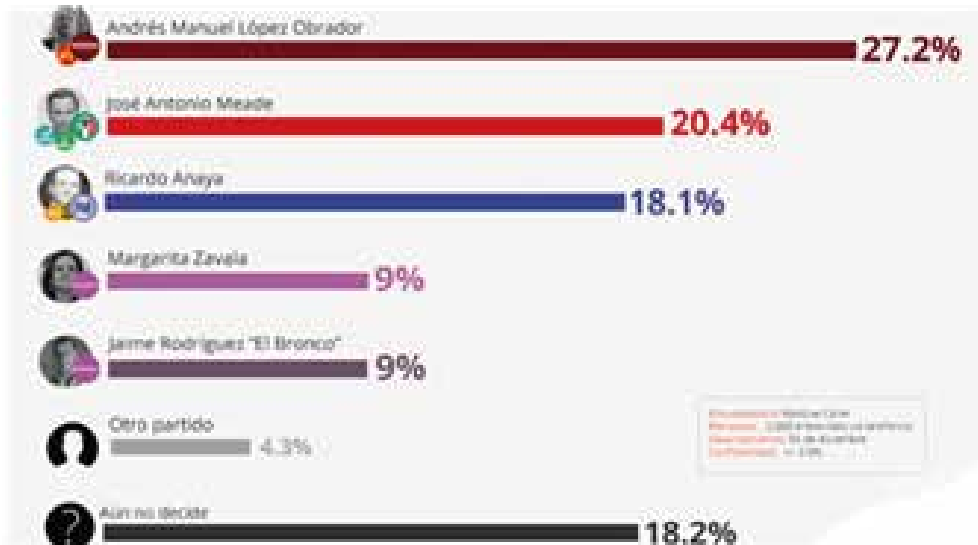


표 1. Massive caller의 2017년 12월 4일 여론조사 결과



표 2. 일간지 레포르마의 2017년 11월 27일 여론조사 결과

| <b>Candidato</b>            | <b>Resultado%</b> |
|-----------------------------|-------------------|
| López Obrador               | 28.7%             |
| Meade                       | 23.2%             |
| Zavala                      | 11.5%             |
| Anaya                       | 8.1%              |
| Miguel Á. Mancera           | 4.3%              |
| Jaime Rodríguez "el Bronco" | 4%                |
| No votaría por ninguno      | 8.5%              |
| No contesta                 | 7.4%              |

표 3. Massive caller의 2017년 12월 4일 여론조사 결과

2017년 11월과 12월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1위는 오브라도르이며 27%-31%의 지지를 받고 있다. 2위는 메아데이며 17%-23%의 지지를 보인다. 3위는 아나야이며 8%-19%, 무소속 후보인 사발라의 경우 약 10% 내외의 지지를 보인다.



GCE(Gabinete de Comunicación Estratégica)의 조사결과에 메아데의 지지가 다른 조사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GCE의 친여권적 성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아나야의 지지가 낮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른 조사와 약 10% 정도의 차이인데 이것은 오차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현재까지 오브라도르가 지지도 1위라는 것은 확고하며 아나야와 사발라가 연대할 경우<sup>2)</sup> 오브라도르를 위협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런 변수가 없을 경우 1강 2중으로 대선 레이스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오브라도르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2012년 지난 대선에서 오브라도르는 31.64%의 지지를 받았다. 현재 오브라도르는 거의 지난 대선에서의 지지율 정도거나 약간 모자란 상황인 것이다.

---

2) 전 정권의 대통령 부인이었으며 국가행동당안에서 사발라의 가문의 비중을 고려하고 앞으로도 10%정도의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사발라가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과연 대선 3수생인 오브라도르가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 표의 확장성이 있을 것인지 또한 생각해볼 부분이다. 신생 정당인 국가재건당의 기반 또한 민주혁명당에 비해 약한 것이 사실이며 민주혁명당은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으나 현재 국가재건당의 행사에 난입하여 예전 우리나라의 용팔이 사태를 연상케 하는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넓게 좌파 진영의 분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더 문제는 멕시코의 기득권층 혹은 스스로 중산층 이상이라 믿는 이들에게 현재 오브라도르는 공적에 가깝다. 정치권을 비롯하여 경제계 심지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선 전에 오브라도르가 갱단에게 암살당한다고 해도 그리 특별한 뉴스가 아닐 정도로 기득권층에게 오브라도르의 입지는 상당히 약하다. 2017년 10월 민주혁명당의 창립 발기인이자 오브라도의 측근인 에르난데스 아세베도Hernández acevedo 부부가 암살당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가재건당의 후보 및 예비후보들이 갱단의 기관총에 암살당하기도 했다. 이런 멕시코의 상황 아래서 오브라도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인가라는 회의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에서 주요 3당이 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당 후보라는 문제도 이런 회의적 전망의 주요 근거이다.



그림 1 (왼쪽). 민주혁명당의 폭력행위를 풍자한 La jornada의 만평

그림 2 (오른쪽). 원내 주요정당의 야합을 풍자한 La jornada의 만평

현재 멕시코 상황에서 약 40%의 득표율이면 당선 안정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오브라도르에게 모자란 것은 약 10%의 지지율이다. 공격적으로 기존 정치권과

기득권을 비판하며 새로운 멕시코에 대한 계획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강조하며 기존의 불신들을 불식시킬지 주목해야겠지만 중도도선이 거의 실패한다는 것을 이미 체득하고 있을 것이다. 펠리페 칼데론과의 대선에서 오브라도르는 초반에 앞서나가다 결국 패배한 경험이 있다. 과연 그 경험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저 대선은 승패를 가르는 승부의 문제가 아니라 멕시코 민중들의 삶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며 현재와 같이 거의 모든 면에서 위기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내외적 변수가 많이 있으나 이것이 모두 멕시코 민중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이번 대선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대외적 변수는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sup>3)</sup>

---

3) 북미간 핵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경우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까지 노릴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트럼프는 미국내 여론을 위해 멕시코를 상당히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면으로 한미간 관계와 멕시코 미국과의 관계는 현재 자유무역협정 개정이라는 과정에서 부정적 상관관계라 할 수도 있다.

알려진 것처럼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 개정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 1차 회담이 2018년 7월이고 바로 대선이 열리는 달이다. 나프타 개정은 대선에서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개정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아마도 멕시코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멕시코에 불리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제도혁명당이 타격을 받을 것이며 또한 이전 집권당이며 시장주의자, 자유무역주의자 정당으로 알려진 국가행동당 또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집권여당에게 유리할 수도 있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 장벽을 다시 언급하면서 나프타를 폐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오브라도르가 최대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 상황은 뭐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지난 2017년은 멕시코에게 재난적 한해라고 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하여 각종 경제 기구들이 발표하는 멕시코의 2017년 경제성장률과 2018년 전망은 라틴아메리카 평균정도인

2% 내외이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4%로 실질적으로는 매년 -2%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경제 사이트에서는 2017년 8월 이후 경제성장률조차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발표하고 있다. 멕시코 페소와 달러 환율은 여전히 1달러당 19페소 이상이고 2018년에 다시 20페소 이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내총생산 자체가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무역수지는 2017년 4분기에는 적자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여전히 적자이다. 2017년 12월에 최저임금이 88.36 페소로 인상되었다. 약 5달러가 안 되는 금액으로 한 시간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일당 기준이다.<sup>4)</sup>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 새해 들어 생필품 위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식료품의 인상폭이 제일 크다.

---

4) 보통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0달러에서 15달러 사이로 보기 때문에 멕시코 하루 일당의 최저치는 미국 시간당 임금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 4. 재무부 및 기타 미디어가 발표한 새해 물가 상승 내역  
출처: <https://www.buzzfeed.com>

생필품/식료품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되고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2017년의 휘발유 가격 인상과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메아테는 10%대 지지 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가 최근까지 현 정부의 재무부장관이었고 제도혁명당 안에서 지지기반



이 약하기 때문에 전통적 지지자만이 아니라 당의 조직도 이탈하여 다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멕시코의 경제적 상황만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큰 변수는 바로 2017년 정부의 발의로 11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가보안법 (Ley de Seguridad interior)일 것이다. UN 인권위원회가 이미 인권을 침해할 요인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고 국가재건당을 비롯한 멕시코 시민사회가 군국주의화를 경고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sup>5)</sup> 멕시코의 역사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차별되는 점은 멕시코 혁명 이후 제도혁명당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군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군부 쿠데타가 멕시코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

5) 멕시코 국가보안법 재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멕시코의 유명 연예인들도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 및 멕시코 기독교에 반대하는 세력이 단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것이 2017년 말과 2018년 현재 계속되는 멕시코의 상황이다.



하지만 멕시코 국가 보안법의 핵심은 치안 유지를 위해 대통령의 명령으로 무장한 군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특별한 상황은 없었으나 앞으로 무장된 군대가 멕시코 국내 상황에 개입할 경우 상당한 혹은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멕시코 휘발유 가격 인상부터 계속된 크고 작은 시위에 무장된 군대가 투입되고 유혈 충돌이 일어난다면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오브라도르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정부여당의 표현을 빌어 표현하면 준내전 상태인 현재상황을 호전시킨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후보인 메아데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다르게 큰 사건 사고 없이 선거전이 치러질 경우 멕시코 국가보안법 자체가 의제가 안 될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또 다른 보수 진영의 후보인 아나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과 페냐 니에토 대통령에 대한 지지, 국정 지지도는 약 25% 정도이며 반대로 부정적 평가는 약 70%에 이른다.

재미있는 것은 2017년 10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이다.



표 5. BGC-Excelsior가 2017년 12월 14일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출처 : <http://www.excelsior.com.mx/nacional/2017/12/14/1207791>

이 여론조사는 단순히 멕시코 국가보안법에 대한 찬반이지만 멕시코 정치구조를 이해한다면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변해가는 것을, 혹은 그 방향성에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층과 그러하지 않은 층을 확실히 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약간 무리한 감이 있으나 멕시코 좌파들이 최대 연합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지지율은 아마도 멕시코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37%정도일 것이다. 반대로 멕시코의 보수적 계층은 크게 보면 약 60%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브라도르가 이 37%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것인지는 아나야와 메아데가 약 60%의 지지자들은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가 이번 멕시코 대선에의 주요핵심이다. 그리고 2018년 1월 현재 오브라도르가 유리한 상황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2018 브라질 대선은 좌파와 우파의 이념대결이 아니라 부패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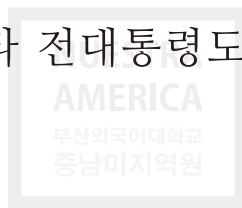
- 젊은 유권자들은 중도보수의 정치적 반란을 꿈꿔 -

조희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서론

올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줄줄이 대통령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양대 국가인 브라질과 멕시코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도 대선대열에 합류해 있다.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좌익과 우익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으로 대선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정치접근은 이번 대선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지난 80년 중반 민주화이래 3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보수와 진보정당의 정치구호와 정책이 상당히 유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집권정당의 정치부패가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 해 라틴아메리카의 대선을 이끄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나는 ‘부패’라고 단언한다. 물론,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멕시코와 브라질은 부패선거가 될 것이다. 룰라 전대통령이 이끈 노동자당(PT)이 2003년 집권한 이래 브라질은 부패도미노에 빠졌다. 이미 2명의 대통령이 부패와 연루되어 탄핵되었고 노동자당(PT)은 멘살라웅, 라바자투 스캔들 등 굵직한 정치부패에는 반드시 이름을 내걸고 있어 부패정당의 이미지가 완전하게 굳어졌고, 이제 룰라 전대통령도 부패로 실행위기에 놓여있다.



멕시코의 경우도 보수정당의 앙리께 빼냐 니에또 대통령이 부패와의 전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못 낼뿐더러 오히려 부패혐의로 곤경에 처해있어 그 후계자인 호세 안토니오 메아데(José Antonio Meade) 재무부장관의 입지가 곤란해지고 있다. 이에 맞서 진보성향의 안드레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전멕시코시티 시장은 일찌감치 부패척결과 빈부격차 해소를 대선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 브라질의 대선후보들:

### 부패의 아이콘 룰라 전대통령이 대선 주도

2018년도 대선 관련하여 브라질 여론조사기관인 Datafolha의 조사에 따르면 좌파인 룰라 전대통령은 34%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우파인 자이르 볼소나로(-Jair Bolsonaro, PSC)가 17%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좌파인 마리나 실바 (Marina Silva, 9%), 우파인 제랄도 알크민(Geraldo Alckmin, PSDB) 상파울로 주지사와 좌파인 시로 고미스(Ciro Gomes, PDT)가 각각 6%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파인 조앙 도리아(João Doria, PSDB) 상파울로 시장도 5%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당(PT)의 셈법은 복잡하다. 룰라 전대통령이 세르지오 모로(Sergio Moro)연방판사가 주재하는 연방 1심법원에서 라바자뚜 부패사건 관련하여 9년6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선행을 접어야 한다. 2심인 제4지역 연방지법(TRF4)은 이달 24일에 룰라사건을 재판할 예정이다. 대선후보 등록마감일인 8월15일 이전에

유죄확정이 되면 룰라는 청렴이력법(Lei da Ficha Limpa)에 의해 대선출마가 금지된다. 만일, 이후에 판결이 나온다면 후보등록은 되지만 선거대법원(TSE)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의 열망을 고려한다면 법원이 청렴이력법을 무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룰라가 대선에 나서지 못하면 노동자당(PT)의 대안은 기껏해야 페르난도 하다드(Fernando Haddad, PT) 전 상파울로 시장인데 3%도 못미치는 지지율을 갖고 있어 자체 후보를 접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에는 연정의 시로 고미스(PDT) 전 세아라 주지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청렴한 이미지의 마리나 실바 전상원의원도 출사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이미 2010년과 2014년 대선에서 3등으로 낙선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가장 인재가 많이 몰려있는 브라질 사민당(PSD-B)에서는 제랄도 알크민 상파울로 주지사와 조앙 도리아 상파울로시장 그리고 조제 세하상원의원 간에



대선후보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으나 이번이 없는 알크민 주지사가 가장 유력하다. 중도보수이자 가장 큰 정당인 민주운동당(PMDB)은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선후보없이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확정적이다.

이밖에 조아깁 바르보자(Joaquim Barbosa) 전헌법재판소 재판소장, 앙리끼 메이렐리(Henrique Meirelles, PSD) 재무부장관 등이 후보군에 있으나 지지도는 무의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볼소나로 하원의원이 17%의 지지율을 받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볼소나로에 열광하는 이유는 부패로 오염된 기존 정치인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 양대 국가인 브라질과 멕시코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클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다면 라틴아메리카의 대선은 ‘클린후보’간의 경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쉽게 예단할 수 있는 선거전략은 좌우 이념에서 벗어나 누가 더 깨끗하고

어느 당이 덜 오염된 당인가 하는 것이다.

### 브라질 대선의 첫째 키워드는 ‘반부패’이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패와 범죄 그리고 사회안전망이 대선의 키워드가 될 것 같다. 지난 30년간 굴곡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중산층은 증가했기 때문에 빈부격차에 대한 사회적 분노는 아주 크지 않다. 그렇다면 일단 7월 15일에 대선결과가 나오는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의 대선결과는 브라질, 베네수엘라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판세를 점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노동자당(PT)은 이번 선거에서 물라없이 완주가 어렵다. 그러나 물라가 당선돼도 낙선되어도 ‘부패문제’는 노동자당(PT)의 주홍글씨이다. 물라가 당선되면 정치적 독립성이 강한 검찰과 법원이 물라의 부패사건을 계속 파헤칠 것이기 때문에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 호세 무히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송병선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 1.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는 인구 3백만 명의 조그만 나라이며, 우리나라의 대척점을 이루는 곳이다. 유영호 작가의 조각품 ‘그리팅맨’이 2014년에 수도 몬테비데오에 설치되면서 랜드마크가 되어 우리나라가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의 정치인 호세 무히카가 2010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의 조명과 찬사를 한 몸에 받는다. 이렇게 무히카는 우루과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다.

사실 호세 무히카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1970년대 도시 게릴라로서 하수구를 누비며 무장투쟁을 벌이다 여섯 발의 총상을 입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땅굴을 통해 두 번의 탈옥에 성공했으며, 결국 붙잡혀 살인적인 고문을 받고 14년간 독방생활을 한 장기수였다. 1985년 국제사면위원회의 도움으로 석방된 뒤 1994년 좌파 정치조직 민중참여운동을 대표해 게릴라 출신으로는 첫 번째 하원의원이 되었다. 1999년에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고, 2005년 좌파연합인 광역전선이 정권을 잡아 우루과이 최초의 좌파 정부가 수립되자 농축수산부 장관을 지냈으며, 2009년 10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년부터 5년간 우루과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다.

2012년 영국 BBC 방송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한다. 그 이후 그의 이름 앞에서 항상 이 문구가 따라붙는다.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기에 그가 국제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2013년 노벨평화상 최종후보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일까?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자. 첫째는 인질로서 최악의 조건에서 오랜 투옥 생활을 한 게릴라 출신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대통령 급여의 대부분을 극빈층을 위한 주택사업에 기부했다는 것이다. 그가 살고 있는 조그맣고 허름한 집과 텃밭, 다리가 하나 없는 암캐, 낡은 베이지색의 폭스바겐 풍덩이 차, 그리고 일반 노동자 같은 옷차림은 국제 언론 매체들에게 매혹적인 이미지를 주는데 이바지한다. 셋째는 소비지향주의에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의 철학이 여러 현장에서 표명되면서 그의 목소리가 널리 알려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가령 그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죄수들과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고, 콜롬비아의 평화협상을 중재하려고 시도했으며, 미국에 수용된 쿠바 죄수 석방 등을 중재한다.

## 2. 무히카, 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

아마도 국제 언론 매체가 그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은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오+20) 동안에 시작되었던 것 같다. 거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을 한다.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도 사람들이 독일인들처럼 가정마다 같은 비율의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얼마나 남게 될까요? 우리의 문명은 시장경제의 자식이며, 경쟁 사회의 자식이고, 물질적으로 강력하고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시장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계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화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계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자비한 경쟁에 바탕을 둔 경제체제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라는 것과 협동정신에 관해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형제애는 어디까지 이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질보다 행복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세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발전하려는 목적만 가지고 이 지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지구로 온 것입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2013년 9월에 열린 68차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지속된다. 무히카는 “우리는 단지 소비하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소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좌절감과 가난 그리고 자기통제에 시달립니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살아가면서 행하는 낭비의 의미를 “축적과 시장의 문화로서 대중화”라고 밝히면서 “뉘를 잃은 채 우리는 생명 자체를 보호해주는 우리의 생물학적 상태에서 도망쳐 축적을 기능적 소비주의로 대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화에 바탕을 둔 경제가 아닌 다른 의미의 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가장 억눌린 사람들과 단결하고, 낭비와 사행을 단호하게 처벌하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는 일이 시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경제를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쓸모 있고 유용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 동원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퇴보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 것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실용성 중심의 신 케인즈주의를 타도하고 현재의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수치심을 없애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세상이 커다란 민족국가나 초국적 기업, 그리고 특히 금융체제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과 연결된다. 즉, 과학적 지혜를 겸비한 고귀한 정치와 정책이 세상을 지배해야 하며, 과학은 이익을 탐하지 않고, 미래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해주어야 할 임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 3. 호세 무히카의 사상 혹은 특징

호세 무히카의 철학적 경향, 즉 세월이 지나면서도 거의 변하지 않은 행동과 생각은 대략 일곱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땅에 대한 강박적 집착이다. 이것은 땅을 사랑했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시작



되었고, 이후 국민당의 전통이 이런 집착을 강화시켰으며, 농촌노동자들의 대변자인 투파마로스 게릴라의 지도자 센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국가의 역사와 삶을 거의 무정부주의자처럼 본다는 것이다. 사실 그가 관료주의를 불쾌한 눈으로 보는 것은 그다지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다. 셋째는 청교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 청빈이다. 그리고 넷째는 인문학 교육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 닥치는 대로 문학과 역사 관련 서적을 읽었고, 수감되면서 더욱 많은 책을 읽었다. 그리고 통솔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들을 면밀하게 관찰했다. 그의 표현은 때때로 매우 직설적인데, 이것은 그의 동포들(가난한 사람들이나 부랑자들, 혹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과 관련된다. 일부 좌파 대학생들은 이런 그의 표현에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무히카가 자신들을 흠집 낸다고 느끼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다섯째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실용주의적 성격이다. 여섯째는 실용적 작업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경험 - 그는 조그만 텃밭의 주인이며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함 - 과 그에게 할당된 해방적이며 교육적인 힘에 관한 성찰에서 유래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 4. 무히카와 민주주의

이런 개인적 특징 이외에도, 무히카는 선거에 참가하여 대통령이 되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 이것은 조국을 위해 게릴라 활동을 했으며 포로로서 힘든 수감생활 등 그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 무히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호세 무히카는 반체제인사 중에서 정부 최고책임자가 되면서 1960년대의 좌익들을 민주화 과정에 통합하고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히카는 아직 끝나지 않은 변화 과정에 있는 사회적집단의 분노와 유토피아, 그리고 모순과 희망과

실망을 함께 하는 변증론자이다. 그렇게 그는 거의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 그는 투파마로스 게릴라를 지휘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과거의 좌파들을 현재화를 향해 격동의 바다로 향해하도록 납득시킨 장본인이었다.

사실 극소수를 제외하고서 1960년대 좌파는 권력이란 지배계급과 제국의 대리인인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면서 이런 지배계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는 군인과 경찰이라는 탄압적인 무력세력을 동원해 계속 지배하려고 애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개념과 현재의 개념, 즉 무장 혁명이나 쿠데타 없이,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분산하여 할당하는 방식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

무히카는 이런 변화 과정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보았고, 투명하게 그것을 반영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역전선’의 단합에 세심한 정성을 기울였고, 타바레

바스케스의 지난 정권 동안 그런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최초의 좌파 정부가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했던 것이다. 이런 모든 요인이 합쳐져 호세 무히카는 세계적으로 우루과이의 상징이 된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우루과이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것이다.



### 암초에 부딪힌 마크리 정부의 개혁정책과 과제

손혜현 (국립외교원)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안정이 필수적이다. 2015년 12월 10일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며 출범하였으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집권은 했지만 역할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2일 치러진 의회 중간선거에서 여당연합인 캄비에모스(-Cambiemos)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의회 내 다수당이 되었다. 캄비에모스는 하원의석을 기존 87석에서 108석으로 그리고 상원의석을 기존 15석에서 25석으로 늘렸다. 물론 의회 정족수인 129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의회의 2/3석을 방어하지 못한 야당이

이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할 수 없게 됐고 실용주의성향의 비(非)키르츠네르파 야당들과의 정책연대 가능성으로 안정적인 정치적 입지를 갖게 되면서 개혁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게 되었다.

선거직후 개혁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적 기대가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아르헨티나의 메르발(Merval)지수는 2.98%나 상승했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마크리 대통령은 예상대로 그동안 미뤄 두었던 연금, 조세, 노동 등 경제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들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페론주의의 분열, 노조의 분열 그리고 캄비에모스의 안정적인 정치적 입지 확보로 마크리 정부의 개혁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다. 그러나 최근 연금개혁법안과 노동개혁법안에 대한 사회와 야권의 반발과 국가현대화 대통령령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로 불과 2달 전까지만 탄탄대로가 예상됐던 마크리정부의 개혁 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2월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지수가 20.3% 떨어져 마크리 정부 출범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마크리 정부의 개혁이 심각한 정치적 도전에 직면했다.

세밑을 앞둔 지난 12월 18일 연금개혁 법안에 대한 하원의 심의가 진행 중이었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회의사당 주변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의회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와 이에 맞서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시위대의 진입을 막는 경찰과의 유혈충돌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국회의 연금법안 심의 중단과 과격세력과 경찰의 폭력중단을 촉구하는 “카세롤라소(cacerolazo 일명 냄비시위)”가 일어났고 노조는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비행기, 기차 그리고 지하철이 멈춰서면서 전국이 마비됐다. 이날 시위로 162명의 부상자(경찰 88명 민간인 74명)가 발생했고 64명이 체포됐다. 결국 연금개혁법은 극심한 저항 속에서 하원을 통과했다.

아르헨티나 연금제도는 1904년에 처음 도입되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저 부담 고 급여 구조와 높은 노령인구 부양비율로 인해 운영적자가 연간 GDP의 1~1.5%에 달할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전체 재정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재정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는 1500만 명(연금수급자 690만 명, 양육수당 수급자 400만 명, 가족수당 수급자 39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연금개혁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개혁이 쉽지 않은 부문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회적 저항이 거셌던 이유는 새로운 연금인상방식 적용에 따른 연금인상 시기의 지연과 연금수령액의 감소 때문이었다. 연금법 개정 전에는 1년에 두 번 사회보장국(ANSES)의 세금 50%와 임금인상률 50%를 반영하여 조정해 왔으나, 새로운 연금법에서는 물가 인상률 70%와 임금인상률 30%를 반영하게 된다. 즉 앞으로는 세금 대신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연금인상률을 조정하게 된다. 그리고 연금수령 연령도 남자는 70세 그리고 여자는 63세로 연장되었다. 새로운 인상방식에 따라 2018년 3월로 예정됐던 연금인상은 6월로 미뤄졌고, 인상률도 15%가 아닌 5.7%가 적용된다. 국민들과 야권의 반대로 법안통과가 어렵게 되자 정부는 30년간 연금 불입액을 납부하고 수령액이 1만 페소(US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수령자에 게 단 1회에 한해 750페소(US 38달러)를 그리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령자에게는 절반인 375페소(US 19달러)를 보상해 주기로 약속하고 연금법을 통과시켰다.

마크리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개선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며 극심한 물가상승으로 점점 더 궁핍해지고 있는 연금수령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연금지출을 줄여야만 재정적자를 축소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이 정책이 빈곤감소에 기여하는지를 가지고 자신을 평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새로운 연금정책이 시행되면 마크리 정부는 GDP의 0.6%에 달하는 1천억 페소(US 5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을 마크리 정부는 지방정부의 긴급한 경제조치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정부 하에서는 지방정부에 배정될 재정된 재정을 연금지급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연금법에 의해 더 이상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연금지급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것이 하원의석 31석을 차지하면서 의회 내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페데랄(Interbloque Argentina Federal)이 정부의 연금개혁을 찬성한 이유였으며, 캄비에모스가 상·하원과 반석을 차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법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했다.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했던 키르츠네르계파의 승리를 위한 연합(Frente para la Victoria)은 하원의석이 65석에 불과했기 때문에 연금법안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연금법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정부는 조세개혁법안을 밀어붙였고 조세개혁법이 지난 12월 28일 찬성 52표 반대 15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조세개혁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제개혁법안으로 앞으로 5년 간 기업 활동에 대한 조세부담을 GDP의 1.5%까지 축소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며, 고용촉진과 투자의 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부담 세는 2022년까지 1만2천 페소 임금에 대해 면제되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수익금을 재투자할 경우 소득세 과세율이 35%에서 25%로 인하된다. 부동산 양도세는 폐지되고 금융소득세는 신설되며 일부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조정된다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뿐만 아니라 영업세와 인지세를 인하하고 전자제품에 대한 내국세율도 인하된다. 반면 항공기, 선박, 고급 자동차와 주류에 대한 내국세는 인상된다. 세계경제포럼의 조사결과 아르헨티나 기업의 조세부담은 2016-2017년 기준으로 137.4%로 138개국 중 가장 높으며, 경제 경쟁력은 104위를 기록했다. 높은 조세부담은 세금회피의 경향을 높여 경제운영의 투명성을 낮추고 세수확보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킨다. 정부는 조세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재정적자가 심각한 아르헨티나의 경우 세수 감소가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과세부담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마크리 정부는 3대 개혁안 중 유일하게 노동개혁은 지난해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노동개혁은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나 다름없지만, 마크리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노동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패키지로 제출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한 상태다. 노동개혁은 고용창출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불법고용의 양성화와 정규직전환 그리고 고용주의 부담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논란의 핵심이 되는 건 일명 방아쇠 조항이라 불리는 물가인상률이 임금인상률을 넘어섰을 때 노동자 측이 추가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제도화이다. 한때 노동계가 이 장치를 반대했지만 지금은 선호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으며, 반대로 초기에 이 장치를 선호했던 정부는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최근에 이 장치를 꺼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올해 물가인상

전망치를 15%로 수정했지만 올해도 물가상승률은 20%대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버스, 지하철, 열차, 택시 등 교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고 전기와 가스요금은 최고 70%까지 오를 예정이고 수도요금도 인상이 예상된다. 그리고 사립학교 수업료, 관리비, 민영의료보험, 통신요금, 학용품가격도 일제히 오를 것으로 예고됐다. 방아쇠조항이 임금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경우 임금협상률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연중 내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노동운동개혁 등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노조는 아르헨티나 역사상 노조와 협력하지 않는 어떠한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앞의 두 개혁은 숨가쁘게 진행했으나, 연금개혁을 반면교사로 노동개혁만큼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실제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개혁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반발만 살 것이기 때문이다. 마크리 정부의 3대 개혁은 그동안 국회를 토론의 장으로

이용했고 야권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민주적 방식을 통해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1일 마크리 대통령은 “탈관료주의와 간소화” 긴급필요 대통령령(Decreto Necesidad Urgente) 27/2018을 관보에 발표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대화부, 생산부, 교통부, 사회보장국 등 8개의 정부부서를 대상으로 노동, 금융, 교통, 농공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19개 법안을 폐지하고 140개의 법조항을 개정하는 방대한 국가현대화 프로젝트이다. 아르헨티나의 긴급필요 대통령령은 일반적인 행정명령과 달리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입법권한으로 완전한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진 법률로서 효력이 있다. 비록 헌법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긴박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DNU를 발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예외적인 상황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법안을 발의하는 DNU는 의회의 의제설정권한을 무력화 하고 입법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통령제의 기본원칙을 무너트릴 수 있다. 마크리 대통령의 탈관료화와 간소화 DNU 발표에 대해 그동안 의회에서 여당에 협력했던 야권의 대화파 의원들은 국가의 기능과 아르헨티나의 미래에 중요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행정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우회했다고 비난하면서 대통령령을 통한 개혁에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의회 중간선거의 승리로 비록 캄비에모스가 의회의 다수당이 됐다 할지라도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캄비에모스가 야권과의 협력 없이 독단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마크리정부는 대화를 통해 야권 주지사들과 가까운 의원들과 대화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실질적으로 대화파 의원들의 지지는 의회에서 개혁법안 통과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발동한 DNU로 인해 정치권에 반대가 확산되면서 노동개혁법안의 의회통과가 불확실해졌다. 최근 DNU 발동으로 암초에 부딪힌 마크리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과만큼이나 민주적 절차도 중요하다.





## 칠레 대선 전후

김순배 (칠레센트럴대학교 학국학 프로그램)

지난해 말 치러진 칠레 대통령 선거는 그리 흥미진진하지 않았다. 우파 세바스티안 피네라 전 대통령(2010-2014)의 재집권이 일찌감치 유력했기 때문이다. 정치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피네라의 당선은 점치기는 어렵지 않았다. 사실 관심은 1차에서 피네라가 50% 이상 득표를 못해서 결선 투표를 치르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 그래서 칠레에서의 나의 첫 투표권 행사의 설렘은 덜했다. 연필로 기표하는 방식의 낯설음이 더했다.

피네라 당선이 유력했던 이유는 여럿이다. 첫째, 집권 중도좌파 미첼 바첼레트 정권의 인기가 바닥이었다. 지난 11월 19일 대선 1차 투표를 두 달여

앞둔 9월 1일, 바첼레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서 21%를 기록했다. 취임 1년도 안 돼서, 대통령 아들과 며느리가 거액의 부당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 비리에 연루된 게 드러나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재판 과정 등이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임기 초 바첼레트 정부가 내세운 정치적 어젠다는 중요했다. 정치변화를 가로막던 선거구제 개혁, 공공연금사 운영 등 연금제도 개혁, 대학무상교육 도입 등 교육개혁, 노동권 강화...칠레의 사회구조를 뜯어고치는 정책들은 논란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고, 사회적 지지를 등에 업어야 가능했다. 그런데, 가족의 비리 사건으로 “물러나라”는 공격까지 받으면서, 바첼레트의 개혁은 진정성과 도덕성에 금이 갔고 정책에 대한 지지는 약해졌다. 그 뒤 “다 똑같은 도둑놈들”이라는 힐난을 내 주변에서 자주 들었다.

둘째, 경제가 뒷받침 되지 않았다. 2017년 상반기 칠레 GDP는 0.5% 성장에 그쳤다. 야권과 보수 언론이 바첼레트 개혁에 반대하는 무기는 줄곧 경제불안, 경제위기, 경기침체였다. ‘급진적 개혁이 기업과

투자자를 불안에 떨게 하면서 경제가 나빠져 국민들이 힘들다’는 공격은 칠레 경제를 좌우하는 구리 가격의 하락과 맞물려 먹혀들었다. 경제성장과 경제지수를 앞세우는 보수 언론 프레임과 야권의 공격 앞에 먹고 살기 팍팍한 국민들은 돌아섰다. A조사에서 B수치가 떨어졌다는 발표가 이어졌고, 성장을 내세운 야권의 프레임을 바첼레트 정권은 깨지 못했다. 그사이 체감 물가는 많이 뛰었다. 2014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방을 하나 줄여서 이사했는데도 월세 5만 페소(약 9만원)를 더 달라고 했다. 그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몇 천 페소씩 꾸준히 올려왔는데, 주인은 오는 3월부터 추가로 월 5만 페소를 더 올려 달라고 얼마 전 통보했다. “요즘 시세가 그렇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다. 주위에서 들어오던 얘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네라는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니 ‘경제는 잘 아는 전문가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받는 인물이다. 피네라 1차 재임 기간 (2010-2014)에 GDP 성장률은 평균 5.3%를 기록했다. 피네라는 법인세 인하 등 경제성장 중심의 친시장 정책을 내세워, ‘경제를 살려 나라를 되살리겠다’고 공약했다.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가 오르는 데

불만인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전략을 폈다.

셋째, 애초 바첼레트 정권은 너무 많은 것을 약속했다. 실망하기 쉽다는 얘기다. 바첼레트 대통령의 1차 재임 기간(2006-2010)은 칠레의 민주화 이후 중도좌파 연립정권 콘세르타시온의 연속 집권 20년의 마지막이었다. 따라서, 20년이나 집권하고도 구조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성이 따라다녔다. 그리고 2006년과 2011년 학생시위 등에서 분출된 사회혁신의 요구는 바첼레트 재선의 배경이었고, 그만큼 야심찬 개혁을 공약했다. 하지만, 양당제가 아닌 수많은 정당으로 구성된 정당연합체제의 칠레에서 거대 어젠다를 합의해 나가기는 쉽지 않았다. 늘 나라는 시끄러웠고 장밋빛 공약을 그대로 지키기는 어려웠다. 기대는 실망에서 반감으로 나빠졌다. “한 여자가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는 택시 기사의 욕이 아직 생생하다.

넷째, 집권 초부터 빼격되던 여권은 선거를 앞두고 분열했다. 집권 중도좌파의 연속 집권은 지난 대선에서

어려운 게임이었다. 푼푼 뭉치기라도 해야 되는데, 범 좌파에서 4명의 후보가 나왔다. 집권 정치연합은 단일 후보를 내지 못했고, 알레한드로 기예르는 우여곡절 끝에 집권세력 일부만의 지지를 받아 출마했다.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는 좀 더 과감한 개혁을 내건 신좌파 대안 정치연합 Frente Amplio를 이끈 정치 신인 베아트리스 산체스에게 몰려갔다. 언론인 출신 산체스는 1차 투표에서 2위 기예르에 2.5% 뒤진 3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그만큼 중도좌파는 민심을 잃었고, 유권자는 변화를 원했다. 좌파의 분열은 2차 결선투표를 앞두고도 이어졌다. 대선 1차 투표에서 피네라는 36.5%로 비록 1위를 했지만 극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7.9%)의 득표를 합쳐도 44.5%였다. 반면, 좌파는 기예르(22.8%), 산체스(20.3%), 마르코 엔리케 오미나미(5.7%)까지만 합쳐도 48.8%로 앞섰다. 최소한 산술적으로는 뒤집을 가능성이 존재했다. 한 달 뒤 결선에서 치열한 대결이 점쳐진 이유였다.

결선에서 피네라와 맞붙는 기예르로서는 산체스 지지자들의 표심을 잡는 게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산체스는 “2차 투표가 우리에게 달렸다고 말하지 말라”고 일찍 선을 그었다. ‘우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표를 몰아주자’고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우리는 누군가의 표의 주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산체스는 막판 피네라에 반대하고 기예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지자를 움직이는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다. 사실 기존 정치구조에 대한 거부를 상징하는 산체스가 현 정치 엘리트 가운데 하나인 기예르를 적극 지지하기는 힘들었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으로 대선 1차 투표율은 46.7%에 그친 상황이었다. 그리고 중도좌파 기예르로서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좌로 가자니 집토끼를 놓치고, 우로 가자니 산토끼를 잡기 어려운 처지였다. 반면, 우파는 뭉쳤다. 극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는 피네라 지지를 선언하면서 결집했다. 그리고 피네라는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 권리보장을 중단시키겠다고 주장하는 등 보수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무엇보다 대선은 인물 대결이다. 1명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근본적 문제는 기예르가 돌풍을 일으킨

산체스처럼, 유권자를 사로잡는 카리스마가 없다는 한계다. 기예르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면, ‘피네라가 싫지만 기예르도 마음에 안 든다’, ‘언론인으로는 좋아했는데, 정치인으로는 모르겠다’는 대답이 많았다. 피네라는 ‘기업가 출신의 억만장자여서 도둑질할 필요가 없다’는 신화라도 갖고 있지만, 기예르는 이런 이미지가 없다. 정치인에게 결정적 약점이다. 그래서, 결선에서 차라리 산체스가 피네라와 맞붙으면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12월 17일 치러진 2차 투표에서 피네라는 54.5%를 득표하면서 45.4%에 그친 기예르를 꺾고 예상을 넘는 격차로 재집권했다. 우파 유권자는 투표장으로 몰려든 반면, 좌파 유권자는 기권이 늘어난 결과였다.

그러니, 기예르의 패배 원인은 칠레 안에 있었다. 하지만 주변국의 불안도 득이 되지 못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 사망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끄는 베네수엘라는 정치사회적 혼란의 수렁에 빠졌다. 기예르는 바첼레트의 정책을 잇겠다고 했지만, ‘기예르가 칠레의 마두로가 될 것이다’ ‘칠레를

베네수엘라처럼 만들 것이다’는 우파의 공격이 먹혀 들어갔다. 그도 그럴 것이, 베네수엘라 혼란에 대한 뉴스는 칠레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길거리 노점상에서는 베네수엘라식 전통 음료 치차와 엠파나다 튀김이 곳곳에서 팔렸고, 치과 의사는 뚜렷한 베네수엘라 발음을 했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베네수엘라 이민자 자녀가 새로 들어왔다. 베네수엘라의 혼란은 뉴스 속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칠레 일상 속 생생한 현장이었다. 그러니, 칠레 우파의 색깔론 공격에 불쏘시개가 됐다. 결과적으로 중남미 핑크 타이드의 퇴조는 이어졌다.

선거는 끝났고, 3월 11일 피네라가 집권한다. 피네라의 향후 집권 4년은 바첼레트에 비하면 부담이 적다. 어차피 피네라와 기예르 사이에 차악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큰 기대가 없으니, 실망할 가능성도 적다. 피네라는 집권 1기 호흡을 맞춘 인물들을 다시 내각에 임명하면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 구리 가격도 상승세다. 피네라의 친시장 정책 방향에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등 재계는 반기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Frente Amplio가 변수가 될 것이다. 기존의 좌-우 정당연합간의 합의로 움직이던 칠레 정치구조는 이제 강력한 제 3세력이 등장함으로써 합의가 더욱 어려워졌다. 의회 진출 정당은 16개에 이른다. 젊은 세대와 학생운동 세력 등의 지지를 받는 Frente Amplio는 사회혁신을 내세우는 세력이다. 그만큼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지지자까지 내각에 앉히고 있는 피네라 정권과는 타협이 어렵다. 우파가 내세운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은 재정확보가 필요한 무상교육 확대 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집권세력은 상원 44%, 하원 47%로 의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하원 3석에서 20석으로 의석을 늘린 Frente Amplio와 교섭이 불가피하다. 급여의 5% 추가 적립을 통한 연금수령액 인상 방안의 처리도 언제든지 다시 거리의 시위를 일으킬 뜨거운 사회 이슈다.

정치적 어젠다를 빼고 일상의 문제를 보자. 피부로 느끼는 삶의 문제는 치안과 이민이다. 중남미에서 치안이 좋다고 알려진 칠레지만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소매치기는 놔두고, ‘포르타나소’ 소식은 불안감을

부추긴다. 주택에 주차하려고 차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틈을 타, 위협하고 차를 빼앗는 수법이다. 동네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하루는 새벽에 총소리 같은 게 한참이나 들렸다. 평일에 웬 폭죽 파티나 싶으면서도 이상했는데, 안전하다는 우리 동네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2012년 칠레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총을 쓰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몇 개월 전 두 갱단 사이의 세력 다툼으로 수도 산티아고 외곽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주거지역에 총탄이 날아든 사건은 칠레를 충격에 빠뜨렸다. 치안안정은 중남미에서 늘 국민들이 꼽는 최우선 과제다. 강력한 치안정책을 펴겠다는 피네라의 공약은 당선에 기여했지만, 치안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국민들은 돌아선다.

그리고 칠레 일상의 다른 문제는 이민이다. 주변국에서 이민자 유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아이티 이민자의 대거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등의 이민자는 그나마 구분이 바로 안 되지만, 아이티 이민자는 피부색과 언어가 전혀 다르다. 지난해만

10만 명을 넘긴 아이티 이민자는 저임금 서비스 산업의 바닥을 채우고 있어 곳곳에서 칠레인들과 접촉한다. 방송에서는 줄지어 공항에서 내리는 아이티 이민자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민자들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아이 반에 전학왔던 베네수엘라 학생에게 교사가 ‘왜 칠레 국가를 안 부르냐’고 했더니, ‘나는 베네수엘라 사람이어서 칠레 국가를 모른다’고 대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적응을 못하던 그 학생은 다른 학교로 옮겼다. 한 이웃은 콜롬비아 이민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발관을 하는데 비싼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 분명 마약을 거래할거야’라고. 이처럼, 이민자와 현지인들과의 갈등과 불신은 곳곳에서 벌어지기 마련이고, 치안 불안과 맞물려 사회적 불만의 화살은 쉽게 그들에게 향할 수 있다. 이민법의 ‘현대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민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이민법 개정 방향은 유럽과 같은 갈등으로 폭발할 수 있다.

사실, 나는 바첼레트 대통령을 참 좋아했다. 2013년 말 재선 뒤 무대 위에서 손을 올리고 엉덩이를 흔들대며

덩실덩실 어울리는 평범한 칠레 중년의 모습이 좋았다. 그의 재임기간에 권위적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 독재시절 만들어져 소수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던 Binominal 선거구제 폐지, 소득 하위 60%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 강화, 성폭행 및 산모와 태아 생명위험시 낙태 합법화 등 의미 있는 구조적 변화를 이뤄냈다. 정권을 내주면서 빛이 바랬지만, 내가 보고 살아가는 칠레는 바첼레트가 추진하던 구조적 변화가 아직 더 필요하다. 지하철 요금 평균이 660페소(약 1200원)인데, 최저임금은 27만 6천 페소(약 50만원)다. 세계적 소득불평등 국가, ‘신자유주의 천국’ 칠레의 사회 구조를 뜯어 고치자는 변화의 요구는 당연히 거세다. 하지만 피네라의 당선으로 이런 개혁은 주춤할 것이다. 칠레는 구조 개혁 지속으로 사회를 바꿔 더 나은 칠레를 만들겠다는 방향 대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더 잘 살게 만들겠다는 경제성장 노선을 택했다. 거대한 구조개혁은 더러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대신 먹고 사는 하루하루의 밥벌이는 고단하고 지겹다. 그래서 경제성장의 신화는 질기고

다시 찾아온다. 이번에는 우파의 약속이 칠레에서 실현  
될지 두고 볼 일이다.





##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발자취

**백종국**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17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며 새로운 해를 준비케 하는 12월, 그 어느 추운 날 진주에 위치한 국립 경상대학교를 방문했다. ‘라틴아메리카 학자와의 만남’ 오늘의 주인공인 백종국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 달려간 그 길, 설렘이 앞섰다. 겨울방학으로 교정은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백교수님과의 대담이 ‘성황리’ 개최된 백교수님 연구실은 학문적 ‘아우성’과 삶의 교훈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학문에만 경도되지 않고, 실천적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 주시며, 균형을 유지하고자 애쓰신 백교수님의 삶의 가치관이 묻어 나온 귀중한 소통의 시간이었다. “학문적 탐구에 있어서 관용의 정신과 측은지심을 학문적 지표”로 품고 있는 백교수님과의 만남, 12월 22일 오후 약 3시간가량 진행되었다.

1. 교수님의 삶을 가장 잘 아우르며 묘사할 수 있는 그러한 키워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키워드를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측은지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동경심과 열망으로 학문 탐구를 시작하였지만 점차 고통받는 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학문 활동과 더불어 시민사회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 동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측은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저의 삶을 가장 잘 아우르며 묘사할 수 있는 키워드는 측은지심이라 생각합니다.



2. 교수님께서서는 학부를 스페인어를 전공 하셨고요. 그 이후 석, 박사는 정치학을 연구하셨습니다.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아울러, 대학원 과정 진학 시 정치학으로 분과학문을 하셨는데요. 정치학을 공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스페인어를 접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어요. 우리가 대학 진학하던 시절에는 전기와 후기 지원이 있었습니다. 재수를 했지만 전기 지원에서 실패하자 삼수는 포기하고 후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찾았습니다. 당시 후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학은 한국외대였습니다. 그 중 서반아어학과는 특별히 경쟁력 있는 학과였습니다. 어학에 즐거움을 갖는 체질은 아니었지만 그 특수성 때문에 서반아어학과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어를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찾아한다고 죽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반아어학과 졸업반이 되자 취업을 할 것인지 대학원에 진학해야 할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결국엔 공부를 더

하기로 하여 서울대학원의 정치학과로 진학하게 된 것입니다. 유학자이신 부친의 영향 때문에 정치학이야말로 ‘대장부’가 할 만한 그런 학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매우 피상적인 동기였습니다...

3. 미국에서 정치학 학문을 접하시며 학위를 하셨는데요. 미국에서 생활이나 학위 과정 중에 에피소드가 있다면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학위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극복하셨는지요.

석사과정 공부 중에 박정희의 군사정권을 승계하는 전두환의 이중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의 저서인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에서는 이를 거부쿠데타라 부르고 있습니다. 정치변동에는 쿠데타, 개혁, 혁명의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쿠데타 중에는 궁정쿠데타, 개혁쿠데타 그리고 거부쿠데타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떤 국가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중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즉 정치참여를 원합니다. 이런 내부의 도전에 대해 권위주의 체제를 운영하던 집권세력들은 대중들의 정치 참여를 거부하는 쿠데타를 시도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전두환 정권이 주도한 쿠데타가 바로 거부쿠데타의 전형이라 해석했고 이것을 석사논문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대적 상황 때문에 국내에서 노골적으로 전두환 쿠데타를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를 비교하는 연구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 내에 거부쿠데타 사례를 찾아보게 된 것이고 찾아본 결과 이러한 사례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부쿠데타 사례는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많았으며 거부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개혁으로 간 케이스가 베네수엘라 멕시코 정도였습니다. 이 집단의 국가들을 비교 대조하는 것이 석사학위논문이었습니다. 석사학위논문 이후에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발전 사례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연구에 특화된 미국

대학을 찾아보았는데 마침 UCLA에서 입학허가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에게 유학의 어려움이란 첫째 언어 장벽, 둘째 재정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요. 미국에 도착한 첫 날부터 언어장벽에 직면했습니다. UCLA에서 보낸 안내 자료를 보니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4번 정류장에 가면 UCLA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UCLA로 가는 버스가 안 왔어요. 알고 보니 UCLA로 가는 버스를 타려면 Westwood 행 버스를 타야 한다는 것을 한 참 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에 도착한 후 한국 학생 도우미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분 말씀이 이 학교에는 유대인이 굉장히 많아서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다는 말과 외국인 유학생은 학점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조언에 따라 박사과정 첫 학기에 2과목만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두 과목에서 다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강과목이

3과목이 되지 않아 다음 해 장학금의 수여 대상자가 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했습니다. 1년 정도의 생활비와 학비 정도를 생각하고 유학길로 오른 저는 정보부족으로 인해 생활고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고자 수영장/병원/학교 청소, 과일행상, 꽃 파는 남자, 스왑밋 청바지 장사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정말 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비참한 생각까지 했었고요.

그런데, 신학기에 수강한 라틴아메리카 연구 입문 수업이 제게는 큰 행운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수업 초기에 에드워드 곤잘레스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몇 가지 지도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스페인말만 하는 멕시코 출신의 한 청소부가 연구실로 들어 왔었어요. 그때 제가 청소부에게 스페인어로 몇 마디 던졌는데 이 교수님이 큰 관심을 가지셨고 이를 계기로 연구조교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 분이 저의 박사학위 지도교수가 되셔서 각종 혜택을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때의 우연한 기회가 아니었다면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스페인어는 저에게 생존의 기회를 제공해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3. 교수님과 (스페인어 포함) 라틴아메리카의 만남은 학부 스페인어를 전공하시면서인데요. 그 이후 정치학이라는 학문적 프레임과 렌즈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연구를 지속해 오셨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논문 가운데 『이베로 아메리카 연구지』에 게재된 (2011년) “라틴아메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과 한계” 등은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데요.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 관련 연구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교수님은 “멕시코 혁명사” (한길사) 등 멕시코 국가 연구에 수많은 연구 논문과 저서 등이 있습니다. 멕시코 연구에 특별히 집중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멕시코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를

이해하는 것이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첫 걸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리적으로 미국과 가까워 이동도 쉬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동차로 3시간이면 티후아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멕시코의 여기저기를 자주 들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멕시코인들이 품었던 꿈과 비전 그리고 이를 위한 투쟁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또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 틀에만 사로잡혀 시야가 좁은 게 사실입니다. 멕시코 혁명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들과 견줄만한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또 멕시코 혁명을 통해 성립된 제도혁명당의 장기집권과 이로 인해 어떤 장점과 단점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멕시코는 파고들수록 흥미 있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4. 멕시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멕시코 대선입니다. 3번 째 대선에 도전하며 현재 지지율 1위의 모레노 당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 등 멕시코 대선의 전망과 관전 포인트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과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두 번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승리를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에서 선두주자로 달리지만, 기득권층이 과거처럼 선거 막판에 다수의 대중을 선동하거나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선거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요. 현재 2위권 후보와 비교하면 5~10% 앞서 간다고 하지만 이 차이는 별반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국가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은 제도적으로 선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득권층이 선거관리 위원회를 장악하는 형태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선거는 있지만 정권교체는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형태를 선거권위주의 혹은 경쟁적 권위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중산층이 주도하는 제3의 감시기구가 존재해야 하는데 멕시코는 이러한 감시기구가 없습니다. 이러한 감시 기구를 통해서 국민 투표에 의한 선거의 결과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최종결과에 반영되도록 통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니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방대한 시민 네트워크 감시단의 유무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며 현재 누가 대선에서 선두주자로 달리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5. 좀 더 큰 프레임에서 여쭙보고자 합니다. 2018년은 라틴아메리카의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라틴아메리카 내 많은 국가들이 대선 및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 언론들은 좌우의 이념적 프레임으로 선거지형도를 구분 짓고 있습니다. 2018년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2018년도 라틴아메리카의 전망은 일종의 경제순환 사이클처럼 상승 및 하강 곡선이 주기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좌우의 이분법적인 이데올로기 문제라기보다는 각 국가별 국민들이 현재의 통치에 대해 호응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의 프레임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책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지 싶습니다. 국내 연구들을 보면 가끔씩 좌파정권에 대해 과도한 희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어떤 국가든 그 국민들의 정치수준만큼 정치경제적 결과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6. 교수님의 연구 영역을 보면요. 라틴아메리카와 더불어 한국의 정치경제에도 많은 연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비교정치경제 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 혹은 동아시아와 관련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연구물들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이해 및 설명하는 데 비교 우위적 변수들이 있는지요.**

비교연구와 지역학이 중요합니다. 철학적 접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학적 연구의 토대는 역시 비교연구와 지역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라틴아메리카에 국한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라틴아메리카적 특수성에 빠지는 치명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특수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비교해야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토지개혁이라는 국가정책이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의 운명을 거시적으로 어떻게 바꾸었는가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사례만 놓고 보면 우리만의 ‘특수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박정희의 군사독재가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는 주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3세계 국가들 특히 라틴아메리카 사례를 살펴보면 군사독재로 성공한 경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군사독재로 중진국의 문턱에서 낙오한 사례들이 자주 목격됩니다.

토지개혁의 중요성을 잠시 살펴봅시다. 토지개혁이야말로 농업사회 단계에서 국민 다수의 기본적인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토지개혁을 통해 자영농이 발생하며 이러한 자영농이 노동과 자본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토지개혁은 공업화의 초석이 됩니다. 신자유주의 캠페인은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신자유주의 캠페인에 속아 넘어간 멕시코는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너무 많은 양보를 해서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멕시코는 다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위해 투자하는 주체이지 멕시코를 위해 투자 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략으로 인해 종속이론이 말하는 내부 식민지가 멕시코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멕시코 혁명을 완성한 라자로 까르데나스 대통령은 상당량의 토지개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진행된 제도혁명당 정권의 토지개혁 후퇴로 말미암아 멕시코 정치경제는 다시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와 군사독재정권, 그리고 토지개혁 등이 한 국가의 정치경제에 영향을 어떻게 끼쳤느냐를 보려면 당연히 비교연구가 필요합니다.

비교연구는 미시적 사례 연구에서도 유용합니다. 저의 박사학위논문 주제인 자동차 산업 비교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박사학위논문에서 왜 멕시코의 자동차산업은 실패하고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멕시코의 실패와 한국의 성공은 1960년대 중반이 분기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자동차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멕시코는 외세 의존적이고 개방적인 전략을 한국은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방향으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를 발생시켰습니다.

자동차 산업 정책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멕시코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자국 자동차 회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현대차가 연간 10만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은 자동차 조립 공장들의 생산허가를 취소하고 다국적 기업의 진출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등 주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산업 분야에서 주체성을 확립하게 된 결정적인 요소는 지배연합의 단결력이었습니다.

**7. 또한, 교수님께서도 시민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개혁실천연대에 공동대표로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학문에만 경도되지 않고, 실천적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계신데요. 성과와 한계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내에서 학자는 진실을 찾아가는 학문을 연구하는 동시에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민으로서 역할도 해야 합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 역할을 기독교인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해왔습니다. 일종의 복음적 분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적 분업을 실천하려면 학자로서 신학적 개념 개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일반 기독교인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이드 역할의 실현에는 시민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나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기독교시민의 비전과 역할을 고취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타 시민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복지화, 그리고 자유화를 추진하는 흐름을 만들어 내는 주체가 됩니다. 예컨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선거감시활동에는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7년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시민단체들은 이 공선험 활동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8. 교수님의 인식의 확장 혹은 영감을 일으키며, 아울러 학문적 지경을 확장하게끔 한 선진 학자와 그분들의 저서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국내 학자로서는 손봉호 선생님, 이만열 선생님, 안청시 선생님, 민만식 선생님께서 삶과 학문에



있어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이신 안청시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두 가지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당시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과 투쟁으로 인해 급진적이고 과격한 성향이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관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상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다른 하나는 컴퓨터의 활용입니다. 안청시 선생님은 한국의 선거분석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분의 개인 조교를 하면서 누구보다 더 빨리 컴퓨터에 익숙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이 빠른 만큼 활용도도 높아졌습니다. 데이터 처리 시간이 짧아지고 연구를 위한 사색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를 준비할 때 새뮤얼 헌팅턴의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의 라틴아메리카 거부쿠데타 연구가 이 책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분은 이후에 대체로 우파 지식인으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만 이 책만큼은 정치변동 분야의 고전입니다. 이 책에는 정말 멋진 말이 하나 있는데요. ‘혁명을 하는 사회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혁명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회가 희망이 없는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박사학위 시절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학자는 로버트 길핀입니다. 길핀의 책 ‘US Power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은 근대적인 패러다임을 자유주의(liberalism), 민족주의(Nationalism), 사회주의(Socialism)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 했습니다.

길핀의 책을 통해 그전에는 인종주의적 이해에 그쳤던 민족주의를 정치경제적 패러다임으로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한국 산업정책의 기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산업정책과의 선명한 비교도 가능해졌습니다. 이후에 저의 정치경제학 패러다임은 줄곧 민족주의 혹은 현실주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9. 교수님이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만남, 연구논문을 통해 학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 등 참으로 역동적인 삶을 사셨는데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피차에 측은한 마음으로 대하자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 30여년간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자원이 희박하고 좁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보니 피차에 악악대며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긴 합니다. 나름 열심히 가르쳐보지만 이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직업과 소득을 누리며 살기란 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니 더욱 측은해집니다. 더욱이 오로지 취업을 삶의 목표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작금의 행태에 개탄은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코너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미친 듯이 진리만 탐구하여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미래는 신의 손 안에 있고 우리는 진리 탐구를 통해 현재의 기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직 교수로서의 정년을 앞두고 보니 참으로 신의 은총이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30여 년간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는 소득과 폭넓은 연구의 자유 그리고 안정된 신분을 누릴 수 있었다니 참 꿈만 같습니다. 저보다 여러 가지로 더 훌륭하시지만 이러한 행운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참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 와중에도 진리탐구에 만족하지 않고 부와 권력을 동시에 움켜쥐기 위해 분주한 분들을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캐나다에 들렀을 때 들어보니 거기에는 대학교수와 배관공의

월급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그러한 체제가 되었으면 싶군요. 권력과 명예와 부가 한군데로 몰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각자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10.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를 하고자 하는 다음 세대 (후속세대)에게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라틴아메리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연구소에도 고견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폭넓게 공부를 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연구를 좁게만 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의 연구는 여러 가지 장애를 양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소에는 대학원생들 스스로 공부 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대학원생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론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나 교수가 있으면 이분들의 의견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 보다는 학생들 간에 토론만이 좀 더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원생 대상 논문공모전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원생들이 공모전에 제출하기 위해 많은 학문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곧 사회가 필요로 하는 스펙과 학문적 역량을 쌓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이런 활동을 통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후에 그네들의 연구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논문공모도 특징하게 재미있는 것 하나를 던져 주어, 가령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 등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습니다. 나머지는 연구자 자신이 고독하게 고민하며 고군분투해야 하는 본인들의 몫이고요.

한국에서 진행된 라틴아메리카의 연구 역사에 대해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몇 년 단위로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소가 책으로 집대성해 정리한다면 라틴아메리카 연구 후학에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1. 끝으로 앞서 여쭙보았던 여러 질문 외에 교수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글쎄, 보잘 것 없는 저의 삶이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부끄럽습니다. 특히 한 세대나 차이가 나면 구조도 많이 변하고 교훈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미래는 신의 손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연구하시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많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세계 무역과 금융의 허브 파나마

임수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중남미학부)

운하와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파나마. 중남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관심에서조차 벗어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 작은 나라에 진출한 국내 법인의 수는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많을 뿐만 아니라 국내은행으로는 KEB하나은행이 중남미 유일지점을 파나마에 개설하였을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파나마 법인에서 관할하는 인근 지역 국가가 많고, 세계의 많은 은행들이 파나마에 진출해있기 때문이다.

코스타리카 산호세를 출발하여 육로로 파나마에 입국한 필자는 국경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져있는 파나마 도시 다비드(David)에 도착했다. 버스터미널

주변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른 중남미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였다. 다소 혼잡한 터미널 안으로는 코스타리카 산호세와 파나마시티로 향하는 최신 모델의 2층 버스와 미국에서 스쿨버스로 쓰던 중고미니버스가 나란히 승객을 태우고 있었다. 승객들 중에는 전통의상을 입은 원주민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모두 경계의 눈빛으로 필자를 바라보았다. 동양인에 대한 신기함이 아니라 매우 겁에 질린 눈으로 말이다. 그 낯선 시선에 마음이 쓰인 채 커피 천국 보께떼(Boquete)로 향했다. 미국 산 중고 스쿨버스를 타고 한 시간을 달려 아기자기하고 평화로운 보께떼 광장에 내리니 누군가 나를 부른다. 강혜경 사장이다. 강사장은 2012년 베스트 오브 파나마 2위, 2013년과 2014년 1위를 수상하였고, 그 이후로도 매년 1-3등으로 입상하고 있는 커피농장 아시엔다 돈 훌리오(Hacienda Don Julio)의 농장주이자 생산자다. 그는 세계 3대 커피라고 하는 게이샤 커피도 생산하는데, 게이샤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로 보께떼에서 1등이면 세계 1등일 만큼 생산 양과 품질 면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게이샤 커피나무는 커피의 명성에 비해



볼품없었다. 커피나무에 하얀 커피 꽃과 빨간 커피콩이 풍성하게 열리는 다른 품종과 달리 게이샤 커피나무는 앙상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했다. 게이샤라는 품종 이름은 생두 원산지인 에티오피아의 겻차(Gecha)라는 숲 이름이 파나마에 게이샤라는 이름으로 전해진 것이다. 일본의 게이샤에서 유래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다. 산지에서 킬로그램 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고, 현지에서도 한 잔에 만 원이 넘을 만큼 게이샤 커피는 상큼한 과일향, 꽃향기, 가벼운 바디감 등 우수한 품질과 화려한 향미를 자랑한다.



<아시엔다 돈 홀리안(Hacienda Don Julian)>

아시엔다 돈 홀리오는 해발 1,600-1750 미터 화산 지역에 위치해있어 최상의 게이샤 커피가 자라기 적합한 곳이다.



그러나 산꼭대기에 있는 농장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차로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곳이다. 강사장은 이 길을 따라 일하러 올라오는 원주민 커피노동자들을 위해 전기 설비를 추진하였지만, 현지인 농장주들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필자와 농장으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맨발로 다니는 원주민 노동자들이 다칠까봐 나뭇가지 하나하나 골라낼 만큼 그는 원주민과 한 가족이었다. 필자가 농장에서 만난 원주민 가족은 참 밝았다. 하지만 그들도 처음엔 강사장을 경계했고, 가까이 다가서면 깨물기도 했단다. 그제서야 다비드 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원주민들의 눈빛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곳만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커피농장과 다르게 커피나무가 한 줄로 심어져있지 않고, 듬성듬성 심어져있다는 것이다. 커피나무를 심기위해 일부러 나무를 베지 않고 자연과 조화롭게 심어 커피농장이 아니라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야생의 숲 그대로다.

이렇게 야생상태에서 자란 커피는 건조 방식에 있어서도 옛날 방식 그대로 태양열로 말린다. 재배부터 수확, 가공까지 인간의 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확은 지역 원주민들이 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더 많은 커피를 따서 더 많은 품삯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키가 큰 남성들은 커피나무 위쪽의 커피를 따고, 여성들은 중간 부분을, 노인들과 어린이들은 아래쪽을 따다. 더 많이 딸 수도 있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이 방식을 그들 스스로 만들고 지키고 있는 것이다. 환경보존과 원주민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강사장의 경영철학과 화려한 게이샤 커피 향을 마음에 담고, 파나마시티로 이동했다. 예약시스템이 없는 다비드 버스터미널은 오는 순서대로 손님을 태운다. 버스에 바로 탑승해 차장에게 버스요금을 지불하고, 에어컨 바람이 세다 못해 냉동고 같이 추운 버스를 타고 8시간을 달려 파나마시티에 도착했다.

파나마시티의 자그마한 구시가지에는 식민지 시대에 건설한 성당이 일곱 개나 있다. 산 프란시스코 대성당은



<파나마시티 구시가지에서 바라본 신시가지>



<파나마에서 가장 유명한 딤섬 식당 룡풍(Lung Fung)>

매우 단순하고 소박한 작은 성당이였다. 신기한 것은 성당에 에어컨 바람이 강하다는 것인데, 습한 기후로 인한 프레스코화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파나마시티는 습도가 높아 에어컨을 이삼일만 가동하지 않아도 옷에 곰팡이가 필 정도다.

한편 구시가지 건너편에 바다를 바라보고 늘어서있는 신시가지의 높은 건물들은 마치 마이애미나 싱가포르에 와있는 느낌이였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피부색과 식당가의 세계음식도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유독 많이 보였다. 현재 약 20만 명의 중국인들이 파나마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파나마 인구의 4%에 해당한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건설노동자들이 완공 이후에 파나마 운하 건설 노동자로 유입되었다고 하나, 사실이 아니다. 파나마 운하 건설이 금문교 건설 시기보다 앞선다. 중국인들이 파나마에 들어온 것은 1854년 청나라 시대였다. 캐나다와 자메이카를 거쳐 들어온 중국인들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철도건설노동자로 일했고, 운하 건설 때도 상당한 중국인들이 들어와 정착했다. 중국인 이민 역사는 파나마 사람들의 식문화도 바꾸어놓았는데, 이제 딤섬은 파나마 사람들이 즐겨먹는 아침 메뉴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딤섬 채반은 중국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대나무 채반을 쓰지 않고 이민 초기의 옛날 방식 그대로 지켜오고 있다.



<새로 개통한 확장 운하>

전 세계 무역과 금융의 허브 파나마. 새로 개통된 확장 운하는 파나마를 더욱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국가로 나아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작은 나라지만, 무역과 금융에 있어 우리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파나마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할 때다.

##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국가별 연구동향(2017.10-12)

### 국가명: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센터

웹사이트 : <http://www.lac.ox.ac.uk/>

일시: 2017년 10월 10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Coalitions and Compliance: The Political Economy of Pharmaceutical Patents in Latin America  
(연합과 준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제약특허의 정치경제)

일시: 2017년 10월 20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Challenges of Ecuador Today (오늘날 에콰도르의 도전과제)

일시: 2017년 11월 3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In denial: drug policy and the war on human rights in Mexico (부정적인 측면에서 멕시코에서의 인권과 마약전쟁)

일시: 2017년 11월 7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The Social Life of Politics: Ethics, Kinship and Union Activism in Argentina (사회 속의 정치: 아르헨티나의 윤리, 친족 및 연합운동)

일시: 2017년 11월 14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Business-State Relations in Brazil: the Challenges of Institutional Modernisation (브라질의 비즈니스 관계: 제도적 현대화의 과제)

일시: 2017년 11월 23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Representation Without Taxation, Taxation Without Consent: the Legacy of Spanish Colonialism to Latin America (과세 없는 대표, 동의 없는 과세: 라틴아메리카에의 스페인 식민주의의 유산)



일시: 2017년 11월 29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Por qué el Perú no se gradúa?: La transición de las políticas del “chorreo” a las de productividad (왜 페루는 졸업하지 않는가?: “분출”에서 생산성 정책으로의 변환)

## 국가명: 멕시코

Centro de Investigaciones sobre America Latina y el Caribe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구센터)

웹사이트 : <http://www.cialc.unam.mx/>



일시: 2017년 10월 4일~6일 / 행사종류: 국제 콜로키움  
주제; Luchas indígenas y el Estado en América Latina  
라틴아메리카 내의 원주민 전쟁과 국가

일시: 2017년 10월 16일~20일 / 행사종류: 국제 회의  
주제; Cuerpo, territorio y violencia en nuestra América  
아메리카에서의 신체, 토지 그리고 폭력

일시: 2017년 11월 15일 ~ 17일 / 행사종류: 국제 회의  
주제: VIII Congreso Internacional de Filosofía latino-  
americana hoy 8회 라틴아메리카 철학 국제 회의

일시: 2017년 12월 6일 / 행사종류: 컨퍼런스  
주제: México y España 1975-2017

## 국가명: 브라질

Instituto de Estudos Avançados da Universidade de São  
Paulo (상파울루 대학교고등교육연구소)  
웹사이트: <http://www.iea.usp.br>

일시: 2017년 10월 10일 / 행사종류: 컨퍼런스  
주제: Democracias em Crise? Experiências Europeias e  
Latino-Americanas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국가들?  
유럽과 중남미)



일시: 2017년 10월 31일 / 행사종류: 발표회

주제: Lançamento do livro "Inovação no Brasil: Desafios Jurídicos e Institucionais" (브라질 혁신: 법적 및 제도적 과제 - 책 출간)

일시: 2017년 11월 16일 / 행사종류: 컨퍼런스

주제: Cidades Brasileiras e Mudanças Climáticas: As Relações entre Ciência e Política (브라질 도시와 기후 변화: 과학과 정치 간의 관계)

일시: 2017년 11월 24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1 ° Seminário Brasileiro de Economia Circular no Agro (제 1 회 브라질 농경 내 순환 경제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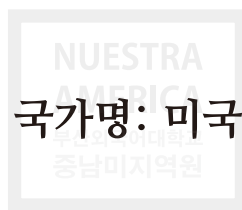


일시: 2017년 11월 30일 / 행사종류: 세미나

주제: **Projetos, Planejamento e Desenvolvimento Urbano no Contexto Brasileiro** (브라질 내 도시 프로젝트, 계획 및 발전)

일시: 12월 19일 / 행사종류: 토론회

주제: **Criminologia na América Latina** (중남미 내 범죄학)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텍사스대학교 오스틴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웹사이트: <http://liberalarts.utexas.edu/llilas>

일시: 2017년 11월 1일 / 행사종류: 강연

주제: “Globalization and Mental Health” (세계화와 정신건강)

일시: 2017년 11월3일 / 행사종류: 도서 발표회

주제: "Cuba' s Revolutionary World"(쿠바의 혁명의 세계)

일시: 2017년 11월9일 / 행사종류: 강연

주제: "The Hidden Patterns of Latin American Ba-  
roque Art"(라틴아메리카 바로크양식의 숨은 패턴)

일시: 2017년 11월 15일 / 행사종류: 강연

주제: "El Camino del Migrante / The Migrants'  
Path"(이민자들의 삶)



일시: 2017년 12월 4일 / 행사종류: 강연

주제: "The Early Mesoamerican City: Urbanism &  
Urbanization in the Formative Period"(초기  
메소포타미아의 도시:초기단계의 어반니즘과 도시화)

## 간추린소식 (10-12월)

## 1. 중남미지역원 제 48회 초청 강연회



10월 12일 중남미지역원에서는 주한 멕시코 브루노 피게로아 피셔(Bruno Figueroa Fischer)대사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멕시코 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부산외대는 2013년부터 주한 멕시코 대사관과 학술 및 문화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와 멕시코의 문화를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열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강연은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의 리더로서 멕시코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경제규모가 비슷한 한-멕시코간의 정체·경제 및 국제관계에 대한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임상래 부산외대 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멕시코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었으며 멕시코 대사관에서도 부산외대와 멕시코 대학간의 교류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 제 32차 콜로키엄 개최

인문한국(IHK)지원사업 해외지역연구소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중남미지역원 제32차 콜로키엄 및 MOU 체결

**"멕시코 대선과  
멕시코 현황과 전망"**

엄기웅  
(Mundus Apertus 법무법인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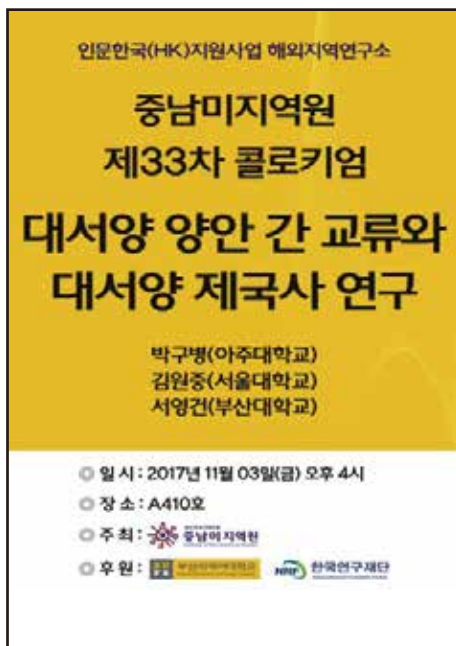
◎ 일시 : 2017년 10월 23일(월) 오후 4시  
◎ 장소 : 부산외국어대학교 A410호  
◎ 주최 :  중남미지역원  
◎ 후원 :  한국연구재단





10월 23일 중남미 지역원에서는 “멕시코 대선과 멕시코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제 32차 콜로키엄이 진행되었다. 이날 콜로키엄에는 엄기웅 Mundus Apertus 법무법인 대표가 참석해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과의 MOU 체결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협정 체결과 콜로키엄을 주관한 임상래 (중남미지역원 원장) 교수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연구 분야에서 상호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학생들의 멕시코 연수 또는 취업 시 비자 취득 등 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우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3. 제 33차 콜로키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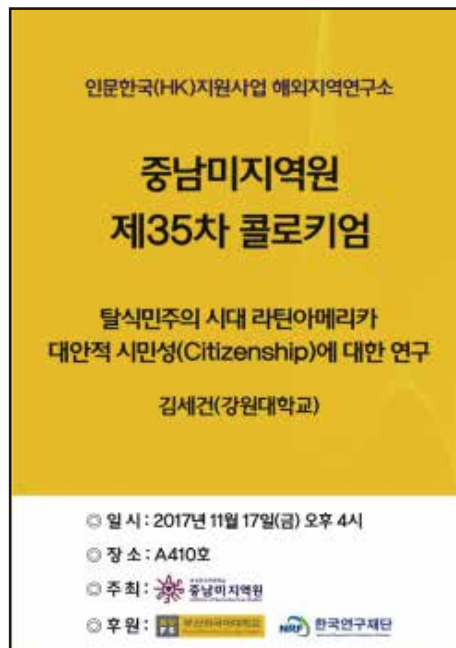
11월 3일 중남미지역원에서는 대서양 양안 간 교류와 대서양 제국사 연구를 주제로 제 33차 콜로키엄이 진행되었으며, 이 날 발표자로 박구병 아주대학교 교수, 김원중 서울대학교 교수, 서영건 부산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대서양 교류와 제국사 연구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4. 제 34차 콜로키엄 개최



11월 13일 중남미지역원에서는 중남미와 보건안보라는 주제를 갖고 제 34차 콜로키엄을 진행하였다. 이날 콜로키엄에는 조성권 한성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중남미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보건안보에 대한 심도깊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 5. 제 35차 콜로키엄 개최



11월 17일 중남미지역원에서는 탈식민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 대안적 시민성(Citizenship)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강원대학교 김세건 교수가 참석하여 제 35차 콜로키엄을 진행하였다. 이번 콜로키엄은 탈식민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적 시민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 6. 중남미지역원 제 49회 초청강연회



11월 16일 중남미지역원에서는 Questões sobre laicidade do Estado, Política e educação no Brasil(브라질의 국가, 정치, 교육의 세속주의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Dra.Profa.Roseli Fischmann (상파울루감리대학교 교육대학원장/상파울루대학교 명예교수)가 초청되어, 부산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부산외대 학생들로 하여금 브라질의 정치, 교육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7. 2017 중남미 문화체험단 모집

중남미지역원에서는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 약 9일에 걸쳐 중남미 문화체험단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문화체험단은 중남미탐방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진행되며, 지도교수 1인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남미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8. CORE사업단 공동학술대회 개최

지난 11월 24일 중남미지역원은 CORE사업단을 필두로 동남아지역원, 지중해지역원, 러시아·중앙아시아연구소, 인도언어문화연구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시대의 문화연구, 문화콘텐츠, 디지털인문학’을 주제로 1부 세션은 '문화연구와 문화콘텐츠', 2부 세션은 '디지털 인문학과 문화지도'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문화와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문학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철학, 지역학, 문화콘텐츠학, 컴퓨터공학 분야의 교내외 연구자와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9명의 발표자가 참석하여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선 다양한 관점의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CORE]2017 CORE사업단·지역원·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                                                                                                           |
|------------------------------------------------------------------------------------------|-----------------------------------------------------------------------------------------------------------|
| “글로벌 시대의 문화연구, 문화콘텐츠, 디지털인문학”                                                            |                                                                                                           |
| 2017년 11월 24일(금) 부산외국어대학교 도서관 1층 금생소극장(H104)                                             |                                                                                                           |
| 참여 신청 : 코어사업단 홈페이지 <a href="http://core.bufts.ac.kr">http://core.bufts.ac.kr</a> 접속 후 등록 |                                                                                                           |
| 학술대회 프로그램                                                                                |                                                                                                           |
| 09:30 ~ 10:10                                                                            | 개회식                                                                                                       |
| 10:00 ~ 10:10                                                                            | 개회사 : 정윤철(CORE사업단 인문융합교육원장)<br>환영사 : 김우성(CORE사업단 단장)                                                      |
| 1부 세션 : 문화연구와 문화콘텐츠                                                                      | 1부 세션 : 문화연구와 문화콘텐츠                                                                                       |
| 10:10 ~ 10:40                                                                            | 디지털 인문학과 라틴아메리카                                                                                           |
| 10:40 ~ 11:10                                                                            | 로컬리티를 방송하다 : 인도네시아 관련 대중매체 제작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11:10 ~ 11:40                                                                            | 여프르-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문화 콘텐츠화                                                                                    |
| 11:40 ~ 12:10                                                                            | 1부 종합토론<br>토론자 : 이태희(충남대지역원), 구경모(충남대지역원), 김희철(부산외대 이질리아어과)<br>최종주(부산외대), 김희철(부산외대), 김희철(부산외대), 김희철(부산외대) |
| 12:10 ~ 12:40                                                                            | 2부 세션 주제 : 디지털 인문학과 문화지도                                                                                  |
| 13:10 ~ 14:00                                                                            | 기초강연 : 글로벌 시대의 대안과 희망 - 글로벌인문학<br>강연 : 최성, 이상, 윤영준 교수, 김희철(부산외대)                                          |
| 14:00 ~ 14:30                                                                            | 디지털 인문학과 지역정보학                                                                                            |
| 14:30 ~ 15:00                                                                            | 디지털 문화지도에 관한 UX/UI                                                                                        |
| 15:00 ~ 15:30                                                                            | 디지털 글쓰기를 통한 문화적 소통                                                                                        |
| 15:30 ~ 15:50                                                                            | 휴식                                                                                                        |
| 15:50 ~ 16:20                                                                            | 소토리움을 활용한 문화지도 제작 연구                                                                                      |
| 16:20 ~ 16:50                                                                            |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시연결 테마공공체 운영모형 연구                                                                         |
| 16:50 ~ 17:50                                                                            | 2부 종합토론<br>토론자 : 김희철(한국문화정보원), 임용욱(한국외대), 김성신(한양대), 남창우(미나리문화), 황창미(금성문화재단)                               |
| 17:50 ~ 18:00                                                                            | 폐회식                                                                                                       |

○ 주최 : 부산외국어대학교 CORE사업단, 동남아지역원, 중남미지역원, 지중해지역원,  
 러시아·중앙아시아연구소, 인도언어문화연구소  
 ○ 주관 : 부산외국어대학교 CORE ○ 후원 : 한국연구재단



## 9. 중남미지역원 20주년 LASAK 공동학술대회 개최



인문한국(HK) 해외지역연구소,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ILAS)은 2017년 12월 1일과 2일 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한국 라틴아메리카 학회(LASAK)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라틴아메리카적 세계화의 함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포함 스페인, 러시아, 일본 등 10여개 국가에서 모두 2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학술대회였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소 20주년을 기념하고 10년의 인문한국 사업 결산의 일환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문학, 문화, 철학/사상, 경제, 정치, 사회 등을 총괄하는 통합 매트릭스적 모델로 구성되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세계 라틴아메리카 관련 학자들과 중남미지역원을 비롯한 국내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더불어 부산 시민들에게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



## 10. 중남미지역원 추계워크숍



중남미지역원에서는 지난 10월 27일(금), 28일(토) 양일에 걸쳐 추계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라틴아메리카적 세계화의 함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양산 에코뷰리조트에서 진행되었으며, 제38회 월례세미나와 함께 개최되었다.

## 11.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대학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사업 선정



부산외대 인문한국(HK) 해외지역연구소 중남미지역원과 국제개발협력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중남미지역원·국제개발협력센터는 2018년 다년간 대학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에 중남미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특수 아젠다로 교육과 빈민구제부문을 지정하여 이론과 현장실습으로 강좌구성을 기획 및 제안하였으며 대학이해증진사업은 지난 2009년 처음 시작되어 대학생들에게 세계시민의식

을 함양하고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그 동안 축적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남미지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12. 중남미지역원 연구보조원 프로그램



2017년 11월 1일 중남미지역원에서는 차세대 중남미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클리 리포트(Weekly report)를 진행했다. 리포트 프로그램은 매주 중남미에 관련한 소식을 영어로 받아 보고 리포트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중남미지역원 연구보조원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13. 금정구청 시민강좌



2017년 12월 14일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중남미 지역원 HK연구교수인 서성철, 이태혁 교수의 부산 인문학 강의를 이루어졌다. 지난 강연에서 서성철 교수는 “음악으로 만나는 라틴아메리카”라는 주제로, 이태혁 교수는 “아마존 원주민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을 하였다. 이번 강연은 국내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와 원주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